



존엄사 재고

신승철 (정신과 의사·시인, 블레스병원 원장)

작년 세브란스 병원에 식물인간 상태 환자 김모 씨의 사례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존엄사 관련 논란이었다. 이 문제로 의료계와 법조계 간의 의견차가 큰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종교계에서도 생명 경시 풍조를 우려한다는 표명이 있었다. 의식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식물환자의 경우, 인공호흡기를 떼어야 하나. 떼다면 언제쯤 해야 하나. 그에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 등의 문제가 요지였다.

선진 여러 나라에서 겪었던 문제가 이즈음 우리에게도 봉착했던 바다. 논란 가운데 결국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존엄사와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견해가 밝혀졌다.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대 병원에서는 각자 그 가이드라인을 부랴부랴 만들어 내느라 분주했다.

언론 쪽에선 1975년 미국에서 식물인간이었던 케런 퀴란이 법정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지만, 무려 9년이나 생존했던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이런 사례를 들고 생명의 소중함, 예측 불가능성, 살아있음의 신비로움을 강조하며 종교계에서는 인위적으로 죽음을 맞게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체로 식물인간의 경우란 인공호흡장치에 의존해 기계적으로 숨쉬는 소리가 들리고, 플라스틱

호스를 입속에 꽂 끼운 채, 심장 소리만 미약하게 들릴 뿐이다. 인공호흡기를 떼면 바로 죽지는 않을지라도 그 수명은 수일 내지 기껏해야 몇 개월 정도다. 해서 병원이나 가족들 처지에서는 환자의 심장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일밖에 없다. 뿐더러 이런 상황이 몇 달씩 계속되다 보면 그 가족으로선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의식은 없어도 생명이 아직 살아있으니 호흡기를 떼면 의도적으로 빨리 죽음을 재촉하는 꼴 아니냐.-이런 경우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 또는 '소극적 의미의 존엄사'라 할 수 있다. 반면 심장이 뛰는한, 어떤 식으로든 계속 살아 있게 해 줘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는 가족도 있겠다.-이런 것을 '무의미한 연명 치료'라 한다. 참고로 말기 암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음을 확인한 뒤, 그 심신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자신의 죽음을 일찍 맞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극적 안락사'로 규정된다. 이런 경우 의사가 환자의 요구에 응해서 특정 약물을 투입해주면 살인으로도 간주한다. 간혹 이런 일로 일부 의사들이 기소됐다는 소식을 월드뉴스에서 보기도 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사실 윤리적으로 문제가 크다. 존엄사라 보기 어렵다. 하나 그것도 자연의 큰 흐름 속에서 보자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없지는 않을 듯싶다. 그러나



자못 이런 이해가 널리 확산하면 분명 자살풍조 만연의 큰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 그에 견잡을 수 없는 파장이 예상돼서다. 혼자가 아닌 공동체 사회란 의미를 되새길 때 역시 윤리적으로 곤란하다는 인상이다.

이젠 의료계 쪽에서 현장체험을 토대로 국민 일반에게 적정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때가 됐다. 치료 중단이 가족들의 경제적 곤란 사유만으로 암암리에 동의해 줘서도 안 될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해 법조계나 종교계의 주창에서 보듯 생명 사상의 일방적 제고라는 측면도 재고되어야 한다. 사실 가톨릭 신자나 불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당시 사회조사한 결과, 80% 이상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런 점 역시 참고가 되어야 한다. 외국의 선례를 보듯 존엄사 문제를 갖고 시민운동을 통해 이의 여론을 수렴시켜 왔다. 물론 그 사회 의사들의 적극적 동참도 있었다.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린 생명을 쓸데없이 연장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윤리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충분히 가정된다. 1981년 리스본에서 열렸던 세계 의사 총회 선언, "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됨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유효한 의미가 있겠다. 소극적 안락사가 미국

이나 일본 쪽에서는 대체로 수렴된 의견이다.

이제는 잘 사는 일 만큼 잘 죽는 일에 대해서도 터놓고 함께 성찰해 봐야 할 일이다. 존엄한 죽음이란 뜻에는 첫째, 식물인간의 무의미한 연명조치를 거부하겠다는 요구. 둘째, 죽기 전까지의 고통완화를 최대한 목표로 해 줄 것. 그리고 치명적인 병에 걸렸을 때 의사나 가족은 그 상태를 환자에게 직접 사실대로 알려줄 것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 결국엔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승에서 정리해야 할 이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다. 남은 생을 슬프나 아름답게 가꾸며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한다는 뜻도 있다.

사실 이런 바탕으로 해서 미국은 50개 주 중 49개 주에서 존엄사 관련법이 제정됐다. 1991년엔 미 연방 정부에서도 죽음 관련, 자기 결정권법이 제정된 바 있다. 일본의 법 제도로도 비슷한 내용이다. 고통 없이 아름답게 생을 마치고 싶은 게 모든 인간의 공통된 바람일 것이다. 평소 우리는 죽음이 라는 운명을 부지불식간에 일단은 부인하려 든다. 이런 탓에 인생을 좀더 연장해보려는 의지가 생기기도 한다. 의사들은 치료과정에서 '어쩌면 가능할 것 같은' 생명의 연장에 대한 희망을 던져 주기도 한다.

1953년 경기도 강화에서 출생했으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연세의대 정신과 교수, 1987년 미국 텍사스 의대 정신보건과정 연구교수, 전 서울 가정법원 가사조정 위원(1997~2001)을 역임했다. 정신과 전문의, 신경과 전문의이며 1978년 해산 박두진 선생님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에 등단하여 시인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장영실 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조선일보 신승철의 부부진단(1997. 3~1998. 4)'을 연재했다. 저서로는 학술서적 '연변 조선족 사회정신의학 연구', 에세이집 '한 정신과 의사의 노트' '남편인가 타인인가'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시집으로 '너무 조용하다' '개미들을 위하여', '더 없이 평화로운 한때'가 있다. 현재 인천시 서구 당하동에서 '블레스병원'을 개원 중이다.